

卷頭言



會長

吳石煥

우리나라가 光復이 된지도 어느 덧 30年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수 많은 難關을 克服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民族의 中興을 위하여, 祖國의 近代化와 先進國의 隊列에 參與하기 위하여 가진바 總力을 다 하고 있는 때 입니다.
도리켜 보면 우리나라의 上水道施設도 光復이후 祖國이 近代化하는 가운데 많은 發展을 이룩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上水道施設은 3,000,000ton/日을 生産하는 規模로 成長을 하였으며 全國의 給水普及率은 4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는 實情인것 입니다.
또한 單位施設로는 300,000ton/日 容量의 施設이 있는가 하면 完全自動淨水處理施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刮目할 만한 發展을 이룬 光復 30年이라는 數字는 단순한 算術的인 評價에만 그칠수 없는 水道人 여러분의 피 땀 어린 意志의 結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上水道도 이제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는 契機가 到來 하였습니다.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水系別 広域 上水道 開發計劃입니다.
重化学工業等 급격한 産業의 發達에 따르는 工業用水의 需要와 上水道水源의 確保를 위하여 5個 水系別 沿邊의 都市를 広域水道化하여 單一 取水 送水配水 體系를 確立하여 上水道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또한 開發利益의 地域的 均配, 受惠國民의 擴大를 期하여 1人當 給水量 230ℓ, 平均 普及率 73「퍼센트」에 이르는 開發計劃이 推進이 되고 있는것 입니다.
이와같은 劃期的인 計劃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水道人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피나는 努力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80年代를 向한 우리의 努力이 結實을 보기 위하여는 自己의 말은 實 責務를 誠實히 다 하는것 만이 國家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銘心하시고 水道人 여러분의 奮發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1975年 9月